

꿈과 계시

2016, 8, 7 일요일
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

제닝 소트롱의 꿈과 계시

토요일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남은 무리” 교회.

예수의 믿음 : 예언의 신

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

꿈과 계시

515-1 장 No. 1 계시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유대인에게 보내는 기별

계시

- 1) **유대인에게 보내는 기별**
- 2)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 3)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니엘 8:12-18의
예언의 책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황폐케 하는 자가 가깝습니다!

- 4) 하나님의 아들께서 집에서 멀리 있고,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사는 유대인에게 계시하시
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 5) **늦었습니다!**
- 6) “뒤돌아 보지 말아라!

**달아나라! 황폐케 하는 자가 귀신들인 그의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오기 전에 떠나라!”**

7) “유럽을 떠나라!

여기에서는 너희에게

피난처가 없다.”

8) “너희에게 아무 보호가 없다. 너희는 귀
신들의 분노를 겪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
의 피에 목말랐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크
게 분을 내었다. 그가 죽이려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옷에 다윗의 별을 가
진 유대인의 피에 목말랐다.”

9)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 대한
사랑으로써, 최대한 많은 유대인 가족들과 그 자
녀들을 구원하시려 [꿈과 계시]를 주셨다고 하셨
습니다.

10) 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람, 사
기꾼 그 자신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피에 목말랐다.”

11) 제닝 소트롱의 꿈들과 계시들을 통하여 **예수
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

**“집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12) “너희는 유럽에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 영토들을 침해한 이주자들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주자들]은 쥐들처럼 거기에
왔다.”

13) “집으로 돌아가라!”

14)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
대인이다.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최대
한 많은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15) “너희 유대인에게 무서운 때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떡이가 될 것이며 너희

옷과 가슴에 있는 너희 유대인의 별로써 너희는 폭로될 것이다.”

16)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무 피난처가 없을 것이다.”

18)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입니다 :

“떠나라! 살기 위해 달아나라!”

19) **“너희 가족을 구하라!**

너희 모국으로 돌아가라.”

20)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별이 그러하였습니다.

21)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떠나라!”

제닝 소트룽

다니엘 8 : 12-18

(단8:12[WEB]) 한 군대가 불순종을 통하여 계속적인 번제와 함께 그것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신이 즐거운 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단8:13[WEB]) 그때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어떤 이에게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기를 계속적인 번제와 **황폐케 하는 불순종**,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밭 아래 짓밟히게 하는 계시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하니

(단8:14[WEB])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천삼백 밤과 낮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단8:15[WEB]) 나 곧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그것을 깨닫기를 구하였는데, 보라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단8:16[WEB]) 내가 올래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단8:17[WEB])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으라, **그 계시는 마지막 때에 속한 것임이라.**

(단8:18[WEB])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다!

부조와 선지자 p.298-300, E.G. 화잇 저

바알 용어를 제하는 번안과 출판을 로이 램키가 함

아모스와 호세아가 전한 형벌에 대한 예언들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들**을 수반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반역하고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팔레스틴에서 그들의 이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하여 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때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야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최후의 회복의 일부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이스라엘 열 지파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리라고 하였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 엘로힘 야훼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하므로 야훼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말하였다(호 3:4, 5).

호세아는 표상적인 언어로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와 연합할 모든 회개한 영혼들에 대한 야훼의 회복의 계획과 약속된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하던 시대에 약속된 축복들을 열 지파 앞에 제시하였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몹시 갈망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이쉬[“내 남편” 난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내 주” 난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호 2:14-17)고 선언하셨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우신 야훼의 언약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당신은 내 엘로힘이시라** 하리라”(호 2:18-23).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야훼를 진실히 의뢰하리니”(사 10:20),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야훼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를 세상에 묶어 두는 모든 우상에서**[그들은 교황권의 일요일 우상숭배를 떠나고{천지의 영원하신 창조주 야훼의 넷째 계명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성 니콜라스의 크리스마스 우상숭배, 이쉬타르 부활절 우상숭배, 큐피트의 발렌타인 데이 우상숭배, 사탄의 할로윈 우상숭배] 떠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엽매는 것으로부터 놓여나 세상 앞에 야훼의 은혜의 기념비로 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야훼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계 14:6, 7, 12) 지킨 자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

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엘로힘 야훼**의 말씀이니라”(암 9:13-15).